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김 지 현*

〈목 차〉

- I. 머리말
- II.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과 배치에 따른 유형분류
- III. 불탑에 조각된 사천왕상의 출현과 상징성
 - 1. 금광명경과 사천왕상
 - 2. 감은사 동탑사리기와 불탑 사천왕상
 - 3. 사천왕상과 사리봉안 장소와의 관계
- IV. 맺음말

국문요약

통일신라시대의 불탑 표면에는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등 다양한 종류의 조각상이 부조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 가운데 탑부조상의 가장 이른 사례는 분황사 모전석탑(634년) 4면에 배치된 금강역사상이다. 통일신라 전형석탑이 완성되는 8세기가 되면 부조상이 본격적으로 조각되며 이후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도상이 석탑 표면에 부조될 뿐만 아니라 부조되는 위치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중 사천왕상은 7세기 후반 『금광명경』의 유행과 함께 등장하는 도상으로, 탑에 조각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호국신앙 및 불탑의 수호와 관련이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왔다. 그리고 사천왕상이 탑에 조각될 경우 네 면의 공간이 확보되는 초층탑신에 배치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인식하여 왔다.

통일신라시대 탑에 조각되는 사천왕상의 위치와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의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이 조각된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동아대학교강사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2009년도 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되었음.

배치에 따라 분류를 해보았다. 그 결과 사천왕상의 공간 배치에 따른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고 지역적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초층탑신에 사천왕상만 등장하는 I 유형과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그리고 그 이외 공간에 다른 도상이 등장하는 II 유형은 경주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출현하는 형식으로 사천왕상이 탑에 조각되는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전라도지역은 II 유형과 초층탑신의 한 공간에 사천왕상을 비롯한 다양한 도상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며 그 이외 공간에 다른 도상이 등장하는 III 유형이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III 유형과 상층기단에 사천왕상을 비롯한 다양한 도상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IV 유형이, 안동·의성을 비롯한 경북지역과 그 주변일대는 I~IV 유형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 중 이른 시기 형식으로 특히 경주지역에서 보였던 I·II 유형의 공통점은 사천왕상이 초층탑신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사천왕상이 초층탑신에 배치되는 이유와 의미를 682년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내 봉안되었던 사리기에 조각된 사천왕상에서 찾아보았다. 특히 동탑사리기의 경우 불국토를 조형화한 전각형사리기로 삼층석탑에 이 모습을 표현할 경우 사천왕상은 석탑의 초층탑신에 배치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탑에서의 초층탑신은 수미산의 사왕천을 상징하며 사왕천인 초층탑신의 위층 공간은 부처가 상주하는 불국토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 관계는 사리봉안의 위치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확인해 본 결과 8세기 중반 원원사지 삼층석탑과 9세기 전반 화엄사 서오층석탑, 9세기 중반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9세기 후반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등에서 초층탑신에 조각된 사천왕상 위층인 이층옥개 또는 이층탑신에 사리공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8세기 중반이 되면 초층탑신에 새롭게 사리를 봉안하는 형식이 등장하게 되며 이후 초층탑신에 사리를 봉안하는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일반적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9세기가 되면 일부 조각상들이 사천왕상을 포함한 제석·범천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상층기단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복합도상이 초층탑신에서 상층기단으로 위치를 변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사리공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주제어 : 사천왕상, 통일신라 탑부조상, 감은사지 동탑 사리기, 금광명경

I. 머리말

통일신라시대의 불탑에는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등 다양한 종류의 조각상이 부조된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 가운데 탑부조상의 가장 이른 사례는 634년에 창건된 분황사 모전석탑의 4면에 배치된 금강역사상이다. 분황사 모전석탑 이외에 부조상이 조각된 7세기의 불탑은 그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다만 석장사지 전탑의 부재로 추정되는 사천왕상 전편과 679년 사천왕사지 목탑 기단부에 배치되었던 채유신장상전, 그리고 경주 구황동 모전석탑지에 남아있는 금강역사상 등을 통해 신라 초기 탑부조상은 전탑과 모전석탑 그리고 목탑의 기단 등을 중심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탑부조상은 신라 전형석탑의 건립 범위가 확산되어 8세기 중엽 이후 본격적으로 조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도상이 석탑 표면에 부조될 뿐만 아니라 부조되는 위치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불탑에 부조되는 다양한 종류의 도상 가운데 사천왕상을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에 관한 연구는 양식적 특징과 전개 양상 그리고 방위에 따른 사천왕상들의 지물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¹⁾ 그러나 사천왕상이 불탑에 등장하는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호국신앙과 『金光明經』의 유행과 관련 있다는 정도의 개설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천왕상이 불탑에 조성되는 의미와 그 상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사천왕상을 포함하여 불탑에 조각되는 조각상들

1) 강우방, 『사천왕사출토 소조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 『고고미술』143·144호, 한국미술사학회, 1979; 『사천왕사지출토 채유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과 오방신과 사천왕의 조형적 습합현상』, 『미술자료』21, 국립중앙박물관, 1980; 권강미, 『통일신라 사천왕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사천왕상의 고찰』, 『문화사학』25, 문화사학회, 2006; 김리나, 『통일신라 전기 사천왕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문명대, 『한국탑부조상의 연구(2)-신라 사천왕상의 연구』, 『佛敎美術』5, 동국대학교박물관, 1980; 신용철, 『화엄사 사자석탑의 조영과 상징』, 『미술사학연구』250·251호, 한국미술사학회, 2006; 서연수,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의 표면장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2;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16호, 한국미술사학회, 1999; 임영애, 『무장형 사천왕상의 연원 재고』, 『강좌미술사』11,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8; 『사천왕사지 소조상의 존명』, 『미술사논단』27, 한국미술연구소, 2008; 장충식, 『통일신라 석탑부조상의 연구』, 『考古美術』제154·155호, 1982.6; 조원영, 『신라시대 사천왕부조상의 조성과정 그 배경』, 『부산사학』19, 부산대사학회, 1995; 허형욱, 『실상사 백장암 석탑의 오방신상에 관한 고찰』, 『미술사연구』19, 2005 등이 있다.

은 공간을 달리하여 배치되는데 이는 상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들의 사례를 살피고 이들이 배치되는 공간에 따라 유형을 분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류를 통해 확인되는 사천왕상이 조각된 이른 시기의 불탑의 사례를 통해 사천왕상이 나타나는 불탑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해석해보고자 한다.²⁾

II.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과 배치에 따른 유형분류

현재 통일신라시대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사천왕상은 경주 석장사에서 발견된 사천왕상전편으로 추정된다(도 1).³⁾ 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전탑의 부조상으로 판단되지만 탑의 형태를 알 수 없어 부조상이 탑의 어느 위치에 배치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⁴⁾



도 1. 석장사지 사천왕상전편, 7세기 후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사진 제공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그러나 이후 경주 지역에서 등장하는 8세기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 9세기의 황룡사지 서편사지 초층탑신 부재,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 동국대박물관의 초

²⁾ 본고에서는 사천왕상의 양식과 분석 비교는 배제하였으며 서술하는 탑부조상들의 시기구분은 선학들의 연구에 의한 일반적 설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시기는 크게 40년 혹은 30년 단위로 전반(~40), 중반(40~70), 후반(70~)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시기마다 탑부조상 사이 선후 관계는 존재하겠지만 크게 전반, 중반, 후반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논지의 전개상 무리가 없으므로 선학들의 양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시기별 연구를 종합하여 참고하였다.

³⁾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의 고찰』, 『문화사학』25, 문화사학회, 2006.

⁴⁾ 『석장사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1994, p.48에서는 ‘뒷면이 편평한 것으로 보아 벽면 장식하였던 조각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도 2. 원원사지 삼층석탑, 8세기 중반, 경주 원원사지



도 3. 김천 갈항사지 삼층석탑, 758년, 국립중앙박물관화엄사 (사진 : 『국보』 11, 예경산업사, 1983, p.23 도 16 전제.)

경이 알려진 사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층탑신 부재 그리고 경주 남산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등에 조각된 사천왕상이 공통적으로 초층탑신 네 면에 한 구씩 배치됨을 감안할 때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사천왕상전편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8세기 중반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에 조각된 사천왕상은 통일신라 전형 석탑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²⁾.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네 구를 배치한 형식은 다른 석탑의 사례와 동일하지만 그 하단인 상층기단 네 면에 각각 3구씩 십이지신장상을 조각한 예는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 유일하다.

이 시기 신라 왕경 이외의 지역에서 불탑에 사천왕상 조각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김천 갈항사지 쌍탑이 대표적이다.^(도 3) 갈항사지 석탑의 초층에 새겨진 조각은 현재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탑 표면에 별개의 장식물을 부착하였던 釘穴이 있으며, 초층탑신의 軸部의 각면에 천의를 휘날리는 사천왕상 혹은 사보살상의 鎚鑠製物像이 달렸던 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난다.⁵⁾ 현재 남아있는 윤곽으로 보아 사천왕상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갈항사지 쌍탑은 동탑 상층기단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경덕왕 12년(758)이라는 절대연대와 조성배

5) 고유섭, 『고유섭전집1』, 동방문화사, 1993, p.303.



도 4. 사사자삼층석탑, 8세기 중반, 전남 구례 화엄사

삼층석탑 초층탑신에서도 확인된다. 복합도상은 사천왕상과 제석 그리고 동자상으로 도상의 종류는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한 공간에



도 5. 관덕동 삼층석탑, 9세기 후반, 경북 의성 관덕동

8세기 중반 경주 이외의 지역에 건립된 석탑 사천왕상 가운데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도 4) 공간적으로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동일하지만 사천왕상과 함께 제석, 범천, 금강역사상 2구가 같은 공간에 복합적으로 구성된다.(이하 복합도상으로 칭함.) 이와 더불어 하층기단에는 한 면에 각각 2구씩 주악천인들이 총 8구가 배치된다.

초층탑신에 복합도상 중 하나로 사천왕상이 등장하는 예는 9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초층탑신에 천인들을 조각하였고 삼층 옥개석 하면에는 삼존불상을 각 네 면에 배치하였다. 또한 하층기단에는 생령좌의 팔부중상을 포치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9세기 후반이 되면 이러한 복합도상의 배열이 초층탑신에서 상층기단으로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도 5). 초층탑신에는 공양보살로 추정되는 입상의 보살상이 각 네 면에 한 구씩 조각되었고 하층기단에는 한 면에 각각 2구씩 총 8구의 천인상이

⁶⁷⁾ 남원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남원 실상사 백장암 시굴 및 금당지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2001, pp.149-159.

나타난다. 상층기단에는 사천왕상과 제석·범천 그리고 부채를 든 도상과 합장을 한 도상을 배치하였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보이는 복합도상과 다르게 새롭게 등장한 이들의 존명은 현재 알 수 없어 본고에서는 천부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상층기단에 사천왕상, 제석·범천, 천부상 2구로 조합된 복합도상은 9세기 후반 안동 십이지삼층석탑, 금소동 석탑 부재, 대전사 석탑 부재 등에서 확인되어 안동과 의성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 일대에서 주로 유행하던 탑부조상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강원도 금강산 장연사지 삼층석탑에서도 상층기단에 사천왕, 제석·범천 그리고 금강역사상의 복합도상이 나타난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통일신라시대 불탑 사천왕상의 사례

연번	명칭	시기	現高 (m)	도상 위치	사리공 위치	탑형식	지역	비고
1	석장사지 사천왕상 전편	7C 후반	-	초층탑신 추정	-	단탑 추정	경북 경주	
2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8C 중반	7.0	초층탑신	이층옥개	쌍탑	경북 경주	십이지신장상
3	원원사지 서삼층석탑	8C 중반	7.0	초층탑신	이층옥개	쌍탑	경북 경주	십이지신장상
4	갈항사지 동삼층석탑	758년	4.3	초층탑신	상층기단	쌍탑	경북 김천	
5	갈항사지 서삼층석탑	758년	4.0	초층탑신	상층기단	쌍탑	경북 김천	
6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8C 중반	5.5	초층탑신	-	단탑	전남 구례	제석, 범천, 금강역사상
7	황룡사지 서편사지 석탑 부재	8C 후반	-	초층탑신	-	단탑	경북 경주	
8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1	8C 후반	-	초층탑신	초층탑신	쌍탑 추정	경북 경주	
9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2	8C 후반	-	초층탑신	초층탑신		경북 경주	
10	화엄사 서오층석탑	9C 전반	6.4	초층탑신	이층탑신	쌍탑	전남 구례	팔부중상 십이지신장상
11	실상 백장암 삼층석탑	9C 중반	5.0	초층탑신	이층탑신	단탑	전북 남원	제석, 동자, 천인, 사방불 팔부중상
12	경주동국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1	9C 후반	-	초층탑신	-	-	경북 경주	
13	관덕동 삼층석탑	9C 후반	3.62	상층기단	초층탑신	단탑	경북 의성	천인, 천부상 공양보살상
14	임하동 십이지삼층석탑	9C 후반	2.74	상층기단	초층탑신	단탑	경북 안동	십이지신장상
15	금소동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	경북 안동	십이지신장상

연번	명 칭	시기	現高 (m)	도상 위치	사리공 위치	탑형식	지역	비고
16	안동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	경북 안동	
17	대전사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	경북 청송	외 상
18	중흥산성 삼층석탑	9C 후반	3.8	상층기단	-	단탑	전남 평양	사방불, 금강역사 공양보살상
19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9C 후반	3.6	초층탑신	초층탑신 아님.	단탑	경북 경주	
20	천군동 출토 석탑 부재	9C 후반	-	초층탑신	-	-	경북 경주	
21	범주사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	충북 보은	
22	현일동 삼층석탑	9C 후반	4.3	초층탑신	-	-	경북 영양	팔부중상 십이지신장상
23	화천동 삼층석탑	9C 후반	4.6	초층탑신	-	-	경북 영양	팔부중상 십이지신장상
24	동본동 삼층석탑	9C 후반	3.12	상층기단	-	-	경북 예천	
25	장연사지 삼층석탑	9C 후반	4.33	상층기단	-	단탑	강원도 금강	제석, 범천 금강역사상
26	일산동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	강원도 원주	
27	옥천동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단탑	강원도 강릉	사방불상
28	부흥사지 석탑 부재	9C 후반	-	상층기단	-	-	강원도 원주	외 상

필자가 살펴본 현재까지 탑부조상 중 사천왕상의 사례는 <표 1>에서와 같이 총 28점이다. 다음은 이 사례를 통해 사천왕상이 탑에 배치되는 공간 그리고 사천왕상과 다른 도상 간의 구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겠다. 사천왕상 부조의 유형분류는 통일신라시대 전체 부조상의 흐름 속에서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탑에서 초층탑신 혹은 상층기단 등 하나의 공간에 한 종류의 도상만 조각하는 경우는 I형식으로 하였다. 그리고 탑에서 두 개 이상의 각각 다른 공간에 각기 다른 종류의 도상을 단독적으로 조각하면 II형식, 하나의 공간에 각기 다른 종류의 도상 즉 복합도상을 배열하고 더불어 다른 공간에도 단독적으로 하나의 도상을 조각한 경우는 III형식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공간에

각기 다른 종류의 도상(복합도상)을 함께 배열하고 다른 공간에는 조상하지 않은 경우는 IV형식으로 구분하였다(표 2).

표 2. 도상의 조합과 공간 간의 구성관계에 따른 유형분류

분류	내 용
I	탑에서 하나의 공간에 한 종류의 도상을 조각
II	탑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공간에 각기 다른 종류의 도상을 단독적으로 조각
III	탑에서 하나의 공간에 다른 종류의 도상이 함께 배열 + 별도의 공간에 다른 도상을 단독 조각
IV	탑에서 하나의 공간에 다른 종류의 도상이 함께 배열

그리고 도상이 배치되는 탑의 공간을 기준으로 초층탑신은 A, 초층탑신 이외의 탑신은 B, 상층기단은 C, 하층기단은 D로 세분하였다(표 3).

표 3. 배치되는 탑의 공간에 따른 분류

분류	탑의 공간	분류	탑의 공간
A	초층탑신	C	상층기단
B	초층탑신 이외의 탑신	D	하층기단

위의 유형을 따라 <표 1>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통일신라시대 불탑 사천왕상의 유형분류

시기	명 칭	구 분																지 역
		I				II				III				IV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7C 후반	석장사지 사천왕상전편	●																경북 경주
8C 중반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																경북 경주
8C 중반	원원사지 서삼층석탑	●																경북 경주
758	갈항사지 동삼층석탑	●																경북 김천
758	갈항사지 서삼층석탑	●																경북 김천
8C 중반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								전남 구례
8C 후반	황룡사지 서편사지 석탑 부재	●																경북 경주

시기	구 분 명 칭	I				II				III				IV				지 역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8C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1	●																경북 경주
8C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2	●																경북 경주
9C 전반	화엄사 서오층석탑				●													전남 구례
9C 중반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									전북 남원
9C 후반	경주동국대박물관 석탑 부재1	●																경북 경주
9C 후반	관덕동 삼층석탑											●						경북 의성
9C 후반	임하동 십이지삼층석탑											●						경북 안동
9C 후반	금소동 석탑계											●						경북 안동
9C 후반	안동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															●		경북 안동
9C 후반	대전사 석탑 부재															●		경북 청송
9C 후반	중흥사 삼층석탑											●						전남 평양
9C 후반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																경북 경주
9C 후반	천군동 출토 석탑 부재	●																경북 경주
9C 후반	법주사 석탑 부재															●		충북 보은
9C 후반	현일동 삼층석탑					●												경북 영양
9C 후반	화천동 삼층석탑					●												경북 영양
9C 후반	장연사지 삼층석탑															●		강원도 금강
9C 후반	옥천동 석탑 부재											●						강원도 강릉
9C 후반	일산동 석탑 부재															●		강원도 원주
9C 후반	동본동 삼층석탑				●													경북 예천
9C 후반	부흥사지 석탑 부재															●		강원도 원주

※ ● : 사천왕상 / ○ : 복합도상(사천왕상 + 다른 도상)

통일신라시대 불탑에 조각되는 조각상들의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사천왕상은 네 가지 유형에서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명확하게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경주지역에서는 I·II유형만 나타나며 특히 I-A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시기에 걸쳐 조성된다. 전라도지역은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의 유형으로 II·III유형이 확인된다. II유형은 9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으로 대표된다.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상층기단 팔부중상, 하층기단은 십이지신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6). 이러한 형식은 이후 9세기 후반 경북 영



도 6. 화염사 서오층석탑, 9세기 전반, 전남 구례 화염사

양 현일동 삼층석탑과 화천동 삼층석탑에서 동일한 도상과 배치로 나타난다.

Ⅲ유형은 8세기 중반 구례 화염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제석·범천, 금강역사상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층기단은 천인상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복합도상과 함께 또 다른 공간에 도상을 조각한 구성인 Ⅲ유형은 9세기 중반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형식은 같으나 도상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다. 초층탑신에 제석과 사천왕상 그리고 동자상이 배치되었고, 초층탑신 이외의 이층, 삼층 탑신에 주악천인상, 삼층 옥개석 하면에 삼존불상이 조각되었다. 그리고 하층기단에는 팔부중상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 후반 광양 중흥사 삼층석탑에서는 또 다른 복합도상의 구성이 나타나는데, 초층탑신은 사방불상, 상층기단에는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2구, 공양자상 2구를 조각한 복합도상이 부조되어 있다.

전라도지역에서 처음 등장하는 복합도상의 구성은 제석·범천,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2구를 기본 구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천왕상을 제외한 도상들은 다양한 도상으로 교체되어 복합도상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강원도지역은 Ⅲ·Ⅳ유형이 확인된다. 강원도 강릉 옥천동에서 발견된 석탑 부재를 통해 초층탑신에는 사방불상을, 상층기단에는 사천왕상과 함께 복합도상을 조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상층기단의 석탑 부재는 사천왕상이 조각된 면석의 일부만 확인되어 다른 도상의 종류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상층기단의 면석의 수가 총 8면이고 사천왕상 4구 외에 다른 종류의 도상 4구가 더 조합되어야 하므로 복합도상임을 추정할 수 있다. 원주 일산동에서 발견된 석탑 부재 역시 상층기단의 사천왕상 4구만 확인될 뿐 나머지 4구의 도상을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도상이 함께 복합적으로 조합되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금강산 장연사지에서 확인된 유형은 Ⅳ유형으로 상층기단에 복합도상만 조각되었고 다른 공간에는 조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층기단에는 제석·범천, 사천왕상, 금강역사 2구가 나타나 전라도지역에서 처음 나타났던 복합도상의 구성과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이 지역은 전라도지역에서 전파된 복합도상 형식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밀접한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의성, 안동지역을 위시한 경북지역에서는 I~IV유형까지 모두 나타난다. I유형의 경우 I-A와 I-C유형의 두 형식이 각각 1점씩 확인된다. I-A유형은 경주지역의 전형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는데, 김천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758년)이 이 유형에 속한다(도 3). 비록 지역적으로는 신라 왕경에서 떨어져 있지만 석탑 발원 주체가 신라 왕실과 관련된 인물임을 감안할 때 경주지역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I-C유형은 9세기 후반에 예천 동본동 삼층석탑에서 나타난다. 사천왕상이 초층탑신이 아닌 상층기단 네면에 조각되는 형식이다. 이는 III-C유형과 IV-C유형 즉, 사천왕과 다른 종류의 도상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조각이 초층탑신에서 상층기단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석탑 조성에 있어 석탑의 부재수가 줄어들어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상층기단에 나타나던 하나의 탱주가 사라져 상층기단은 8면에서 4면으로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복합적 도상들 중 네면에 조각될 수 있는 사천왕상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III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이며 IV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 석탑 부재 혹은 대전사 발견 석탑 부재 등이 있다(도 5). 하지만 현재 경북 지역 일대에서 나타나는 IV유형은 모두 석탑 부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은 상층기단의 복합도상 외에 초층탑신 혹은 하층기단에 다른 도상들이 함께 배열되는 III유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IV유형으로 구분하겠다.

이러한 III유형은 전술하였듯이 전라도지역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9세기 후반 경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복합도상의 도상구성이 변화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크게 제석·범천,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2구의 도상조합이 있으며 이 조합에서 금강역사상 대신 천부상 2구가 새롭게 등장하는 복합도상이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특히 안동과 의성 그리고 청송, 보은 등의 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지역에서 등장하는 IV유형 역시 복합도상의 구성이 이와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사천왕상이 불탑에 처음 조성되었던 지역은 경주지역임을 알 수 있었고 사천왕상의 도상구성과 배치공간과의 관계를 통한 유형분류는 지역적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I·II유형은 경주지역, II·III유형은 전라도지역, III·IV유형은 강원도 그리고 I~IV유형은 경북지역에서 조성되었는데, 특히 모든 유형이 등장하는 경북지역 중 III·IV유형은 안동·의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에서 주로 조성되었다. 시기적으로는 I·II유형이 이른 시

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경주지역에서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의 출현과 상징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불탑에 조각된 사천왕상의 출현과 상징성

1. 금광명경과 사천왕상

불탑에 사천왕상이 조각되는 예는 7세기 후반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형석탑에서 조각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술하였듯이 원원사지 동서삼층 석탑이다. 경전상에 등장하는 사천왕상은 부처와 부처가 상주하는 불국토 및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동서남북 방위의 개념을 가진다. 사천왕상이 널리 신앙되고 조성사례가 증가하게 된 것은 『金光明經』이 유행한 이후부터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금광명경』은 『四天王品』을 따로 구성할 만큼 사천왕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 경전을 護持하거나 讀誦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사천왕이 철저히 보호하여 주고 모든 공포로부터 구제해주며 침략자들을 물리쳐준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를 면하게 하며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질병에 걸렸을 때도 낫게 해 준다.’라고 하여 7세기 당시 『仁王經』과 함께 대표적인 호국경전으로 선호되었다.

경전에는 또 ‘국가가 위태로울 때 사천왕이 도와서 외적이 자연히 물러나 흩어지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7세기 후반 문무왕대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던 사천왕사 창건 내용에서 경전상의 이 구절이 간췌된다.⁷⁾ 사천왕사 창건 기록은 『三國遺事』 卷2 紀異 제2 文虎王法敏條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밑줄 친 내용은 『금광명경』에서 보이는 외적 관련 내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명랑이 채색 비단으로 절을 임시로 지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채색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고, 유가명승 12명이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문두루 밀법을 행하니 그때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 당나라의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그 후 절을 고쳐지어 사천왕사라 했는데 지금까지 단석이

⁷⁾ 『合部金光明經』 卷第五, 四天王品 第十(大正藏 권 16, 382c)…爾時怨敵起如是等諸惡事已 具四兵發向是國規往討罰 我等爾時當與眷屬無量無邊百千鬼神 隱蔽其形爲作護助 令彼怨敵自然退散 起諸怖懼種種留難 彼國兵衆尙不能到 況復當能有所破壞…

끊어지지 않았다...⁸⁾

또한 사천왕사 창건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명랑법사는 밀교 계통의 종파인 신인종을 개창한 인물이다.⁹⁾ 신인종은 『金光明經』, 『灌頂經』, 『觀佛三昧海經』 등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종파이다.¹⁰⁾ 이 중 특히 명랑과 『금광명경』과의 밀접한 관련성은 사천왕사 조성 당시 외적 격퇴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비롯하여 사천왕사라는 절의 명칭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삼국유사』 권제5 神呪 제6 明朗神印條에서 명랑이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처음 조성했던 절의 이름이 ‘金光寺’라는 점도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¹¹⁾

이렇듯 사천왕상이 출현하게 된 신앙적 배경은 신인종의 『금광명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세기 중반 불탑에 사천왕상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탑은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다(도 2). 원원사의 경우 安惠, 낭용 등 네 대덕이 김유신, 김의원, 김술중 등과 함께 발원하여 세운 사찰로 전해져 온다.¹²⁾ 원원사 창건의 중심 인물인 안혜는 명랑의 대표적 후예로 원원사 역시 신인종 계열의 대표적 호국사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원원사 삼층석탑의 경우 초층탑신에 조각된 사천왕상과 더불어 상층기단에 문복을 입고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십이지신 장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십이지신장상 또한 신인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사천왕사 창건에 있어 『금광명경』의 문두루비법과 관련이 있는 『관정경』에는 ‘오방신왕과 그 권속의 이름을 원목 위에 써서 문두루법을 삼을지니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사천왕사지 금당 후면에 배치된 두 개의 단석 위에 만들어진 각각의 12개의 초석과 연결된다. 이 12개의 초석 중앙에는 원공이 뚫려 있는데

8) 『三國遺事』卷2 紀異 第二 文虎王法敏條 …明朗曰“以彩帛假構宜矣。”乃以彩帛營寺, 草構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時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船皆沒於水. 後改創寺,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

9) 『三國遺事』卷第五 神呪 第六 明朗神印條 …文武王聞之懼 請師開秘法禳之<事在文武王傳中> 因茲爲神印宗祖…

10) 문명대, 『新羅 神印宗의 研究』, 『眞檀學報』41, 진단학회, 1976, p.207(『신라 사방불의 기원과 신인사(慶州 南山 塔谷) 사방불』,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pp.49-66. 재수록)

11) 문명대, 앞의 논문, p.190.

12) 『三國遺事』卷第五 神呪 第六 明朗神印條 …又新羅京城東南二十餘里 有遠源寺 諺傳 安惠等四大德 與金庚信金義元金述宗等 同願所創也…

13) 장충식, 『신라 낭산유적의 제문제』,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7, 신라문화선양회, 1996, pp.15-36(『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한국 불교미술 연구』시공사, 2004, pp.115-130에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재수록), 이러한 논지를 이어 발전시킨 연구는 김보형, 『통일신라 십이지상 도상 연구-사천왕사지와 원원사 석탑부조를 중심으로』, 『회당학보』7, 회당학회, 2002, pp.222-274가 있다.

이 부분을 오방신상을 만들고 유가명승 12인이 문두루밀법을 행할 때 사용한 원목을 삽입한 곳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12초석 유구에 상응하는 12인을 십이지로 볼 때 좌우 24개의 초석은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에서 두 쌍의 십이지상으로 변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¹⁴⁾ 즉, 사천왕사와 원원사는 신인종과의 호국사찰로 사천왕상은 『금광명경』과 십이지신장상은 『관정경』과 관련하여 조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7세기 후반에 조각되는 사천왕상은 신인종의 開祖인 명랑 그리고 『금광명경』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탑부조상은 아니지만 682년 조성된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내에서 발견된 동서사리외함에 조각된 사천왕상과 동탑사리기에서 보이는 사천왕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은사지 동탑사리기는 이후 탑에 사천왕상이 등장할 경우 조각될 공간과 더불어 탑에 대한 인식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2. 감은사 동탑사리기와 불탑 사천왕상

감은사 창건 배경은 『삼국유사』, 『寺中記』, 『삼국사기』등을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寺中記』내용이 눈여겨 볼만 하다. 이에 따르면 감은사는 문무왕의 생전에 왜병을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은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완공은 보지 못하고 崩御하자 그의 아들 신문왕이 開耀2년(682)에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¹⁵⁾ 1959년 감은사 서탑 해체·복원 과정에서 삼층탑신 윗면에서 사리기가 발견되었고,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탑 해체·복원 과정 중 서탑과 같은 위치에서 사리기가 발견되었다(도 7).¹⁶⁾

서탑 사리기의 구조는 삼층의 구조로 제일 안쪽에 수정병을 봉안하고, 이 수정병은 전각형사리기에 안치되었으며 다시 이 전각형사리기는 네 면에 사천왕이 조각된 금동제사리외함에 모셨다. 동탑 사리기의 구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14) 장충식, 위의 책, p.126-127.

15) 한정호, 『感恩寺址 東·西三層石塔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pp.3-6.

16) 국립박물관, 『感恩寺』, 울유문화사, 1961;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도 7.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내 사리외함, 682년, 국립경주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사진 : 동탑 사리외함,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48 전재, 서탑사리장엄구,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2007, p.149
전재.)

감은사 쌍탑의 사리기는 『금광명경』의 등장과 가장 관련 깊은 사천왕상이 사리기에 표현된 점과 전각형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출현을 통해 사리봉안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사리병 주변에 사천왕상, 승상, 신장상 및 공양자상, 사자 등을 배치하여 특정 結界의 의미를 보여준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사천왕상은 방위 개념이 반영된 외호신장상으로 사천왕상의 위치는 곧 조형물이 표현하고자 한 공간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사천왕상은 수미산 중턱 네 봉우리로 이루어진 四王天에 거주하면서 위로는 도리천에 상주하는 제석천을 모시고 아래로는 팔부중과 지상 세계를 관장한다. 사왕천과 도리천을 지상세계와 닿는 천이라 하여 地居天이라고도 칭한다. 이러한 사방과 상방, 하방의 개념을 가진 사천왕은 탑이나 사리기에 조각될 때 이러한 기본 의식을 전제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탑 사리장엄구의 경우 사천왕으로 조각된 사리외함 내부에 전각형사리기를 두고 전각형사리기 중심에 사리를 봉안하였다(도 8). 이는 단순히 부처의 유골을 담은 사리 용기에서 다른 의미로의 전환이 내포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⁷⁷

¹⁷⁷ 이는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한길아트, 2003, p.23에서도 사리기 내부를 하나의 불국토로 생각하고 꾸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 8. 감은사지 동탑사리기, 682년,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p.18 전재.)

감은사 사리기 외함과 외함 내의 사리를 바라볼 때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의 개념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 외함에 조각된 사천왕상과 외함 내부에 봉안된 사리기와의 관계는 수평적 공간의 시각에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표현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리외함의 사천왕은 사리외함 내의 사리기 다시 말해, 부처가 상주하고 있는 불국토를 수미산의 사왕천에서 사천왕상이 수호하는 형상을 수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사리함 내의 사리기는 이 자체로 다시, 수미산의 3차원적인 조형에 입각한 수

직적 공간의 개념 하에서 부처와 사천왕, 신장상과 공양자상들의 위계를 조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전각형 사리기는 크게 기단부와 身部, 천개부로 구분된다. 기단부는 네 모서리에 사자상이 배치되고 한 면에 2구씩 신장상 및 공양자상 8구를 배치하였다. 신부에는 문이 배치되어 있고 정방위에 사천왕과 승상이 각각 4구씩 사리 반대편을 향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위치와 방향에 관련해서는 네 모서리로 사천왕상이 자리 이동을 하면서 사리 반대편을 향해야 하며, 각 정방위에 승상은 사리를 바라보며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¹⁸⁾ 그리고 이들 중앙은 사리병이 내장된 보탑형사리기가 위치한다. 천개는 네 면에 화불과 당초문을 투조하고, 모서리에는 용을 배치하여 장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탑에 사리가 봉안되었을 때 탑 표면에 조각될 부조상의 위치를 미리 볼 수 있는 시원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리기의 기단부는 탑의 기단이 되며, 사리기의 身部는 탑신부, 사리기의 천개는 탑의 상륜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천왕상이 탑에 조각될 경우 어느 공간에 배치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사리기의 기단부에 나타나는 신장상과 공양자상은 탑 기단부에 팔부중 및 십이지신장상에 대비되고, 사리기 身部の 사천왕상은 초층탑신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층의 공간에는 佛과 같은 개념인 불사리를 봉안하는 것으로 이

¹⁸⁾ 한정호의 2005년 9월 25일 한국미술사학회 「감은사지 쌍탑과 사리장엄구」 월례발표 내용.

해된다. 이는 곧 삼층석탑에 수미산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초층탑신에 조각된 사천왕상의 공간은 사왕천이자, 지거천이며 옥계의 시작 공간이 되는 것이다.¹⁹⁾

불탑의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이 조각되는 것은 1차원적으로 불법과 불국토의 수호적 의미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보다 삼층석탑에 불국토와 수미산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은 전각형사리기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탑이 더 이상 불타의 무덤이 아니라 부처가 상주하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천왕사지 쌍탑과 함께 감은사 동서삼층석탑의 쌍탑 출현 배경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매우 주목된다.²⁰⁾ 이 발표에서는 『합부금광명경』의 『三身分別品』의 ‘여래는 세 가지 몸이 있는데 첫째는 변화로 나타내는 몸(化身)이요, 둘째는 응하여 나타나는 몸(應身)이요, 셋째는 진리의 몸(法身)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금당은 범신 본존으로 화신과 응신의 여래는 쌍탑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경전적 근거라고 하였다. 이는 탑에 여래의 상주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할 듯 하며 『금광명경』을 통해 탑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감은사 동탑사리기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사리는 곧 부처이며 그 주변의 다양한 도상들 그리고 전각형사리기 등을 통해 탑이 무덤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사리기가 아닌 탑에서도 공간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에 조성된 탑에서 사천왕과 부처와의 위치 즉 사리봉안 장소와의 위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3. 사천왕상과 사리봉안 장소와의 관계

먼저 사리봉안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탑을 중심으로 사천왕상과 사리공과의 관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표 1 참조).

8세기 중반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을 살펴보면 상층기단에 문복을 입은 십이지상들이 연화좌 위에 앉아 합장하고 공양하는 모습으로 조각되며 초층탑신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사리를 봉안한 장소는 2층 옥개석임을 알

¹⁹⁾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은 불교에서 옥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는 것에서 출현하였다고 하며 그 배경을 『조탑공덕경』으로 언급한 연구도 있다.(최민희,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출현과 조탑공덕경의 관계』, 『불교고고학』3,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3, p.68.)

²⁰⁾ 한정호, 앞의 발표, 2005.9.25, 이 논지를 따르는 논문으로 신용철, 『초기 신라 불탑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447-465가 있다.

수 있다. 8세기 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탑신 부재는 2기 모두 사천왕상이 새겨진 초층탑신에 사리공이 있음이 확인된다(도 9).



도 9. 사천왕상이 부조된 석탑 부재, 8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도 10. 승소곡사지 초층탑신의 사리공不在, 9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사진 : 小場恒吉, 『慶州南山の佛蹟』, 조선총독부, 1940, 도판 제101 전제.)

을 두고 있어 사천왕상과 사리공과의 관계를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세기 후반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의 경우 초층탑신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지 않아 분실된 이층 이상의 공간에 배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도 10).²¹⁾

석탑의 해체 및 수리를 통한 작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사리공의 확인이 쉽지 않고 현재 확인된 적은 사례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상의 사실과 함께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다른 부조상과 사리공 위치와의 관계를 보면 세 가지 측면의 전개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

682년 감은사 사리기를 통해 불사리(부처)와 사천왕상 및 기타 도상 간의 공간적 위계는 탑의 표면에 그 상징성이 투영되어 조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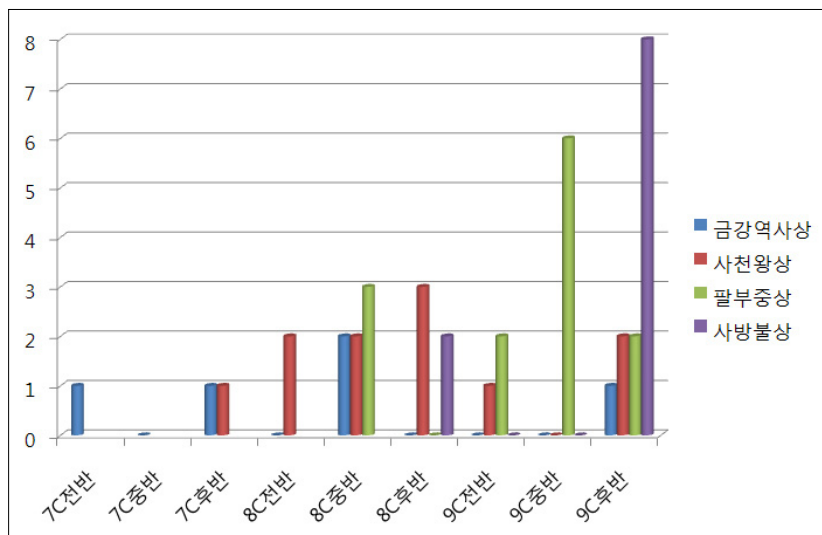
9세기 석탑 중에서는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과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에서 사리공의 위치가 파악된다.²¹⁾ 화엄사 서오층석탑은 하층기단에 십이지상, 상층기단 팔부중,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을 조각하며 이층 탑신에 사리를 봉안하였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역시 초층탑신에 사천왕과 제석 그리고 동자상 및 천인상 등을 조각하고 이층 탑신에 사리공

21) 『불사리장엄』, 국립중앙박물관, 1991, p.118.

22) 小場恒吉, 『慶州南山の佛蹟』, 조선총독부, 1940.

집작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사례가 8세기 중반의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며, 9세기 전반과 중반의 화엄사 서오층석탑과 백장암 삼층석탑 그리고 9세기 후반의 승소곡사지 삼층석탑이다. 물론 9세기 석탑의 사례는 전라도지역의 것으로 경주 지역의 예는 아니다. 하지만 9세기 후반까지 나타나는 승소곡사지 석탑의 예를 통해 경주지역에 현재 발견된 예가 없다고 하여 당시 사천왕상과 사리공의 위치를 의식하며 제작된 탑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즉, 경주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천왕상과 사리공의 위치를 인식한 한 계열이 9세기 후반까지 꾸준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 계열은 사리공의 위치와 사천왕상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제작되어진 8세기 후반 경주국립박물관 소장 탑신 부재이다. 이는 또 다른 계열인 8세기 중반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부조상 팔부중과 함께 초층탑신으로 위치 변화를 보이는 사리봉안 장소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8세기 중반 탑의 표면에 등장하는 팔부중상의 이른 예는 창림사지 삼층석탑이며 사리봉안 위치는 초층탑신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리공의 위치가 팔부중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현재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이 탑 이후 경주지역 탑부조상의 도상적 변화를 살펴보면 팔부중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조성되는 현상을 보이고, 사리봉안 장소 역시 초층탑신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삽도1, 표 5 참조).

삽도 1.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 불탑에 조각된 도상



²³⁾ 새롭게 등장하는 팔부중과 초층탑신의 사리공 위치가 항상 필요충분조건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며 8세기 중반 팔부중이라는 도상이 새롭게 탑에 등장하며 이 시기부터 사리공의 위치도 초층탑신에 나타나는 의미이다. 이후 등장하는 탑에 사리공의 위치는 초층탑신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리공의 위치가 초층탑신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경주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사리공의 위치가 초층탑신으로 변화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나 부처가 상주하는 상징적 공간의 이동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창립사지 삼층석탑이 조성되는 8세기 중반부터 탑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 번 변화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682년 감은사 사리기부터 시작하여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이 등장하는 경우 이 공간까지 지거천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세기 중반 초층탑신으로 사리공의 위치가 변화하면서 초층탑신이 부처의 상주 공간인 불국토가 되어 공간적 위계를 통해 탑신부와 기단부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 중반은 원원사지 삼층석탑이 조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여 창립사지 삼층석탑을 조성할 당시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을 조각하며 하층기단에 팔부중상을 조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층탑신에 문비만 조각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즉 사천왕상과 이 도상의 배경인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과 달리 창립사지 삼층석탑은 다른 신앙을 통해 또 다른 탑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8세기 중반의 석탑이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왔던 초층탑신까지 지거천으로 보는 한 계열과 초층탑신에 사리공이 위치하면서 상층기단까지 지거천으로 보는 한 계열로 크게 두 계열로 구성되어 동시기에 공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의 경우 8세기 중반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 사천왕과 제석·범천, 금강역사상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도 4). 사천왕상과 제석과의 위계는 분명 존재하나 사왕천과 도리천은 모두 옥계에 속하여 같은 초층탑신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 조합된 복합도상도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8세기 경주지역의 석탑에서 초층탑신에 사리공이 위치하는 것과 팔부중상으로 등장한다. 9세기에는 관덕동 삼층석탑과 안동, 의성 일대 석탑 및 부재 등에서처럼 사천왕 뿐만 아니라 제석, 범천과 금강역사상 혹은 사천왕, 제석, 범천, 천부상들이 상층기단에 조각되어 지거천의 공간이 초층탑신에서 상층기단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초층탑신에 대부분 사리공이 배치되며 조각상 역시 불보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불국토로 공간적 성격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9세기 도피안사 삼층석탑의 모습을 통해서도 초층탑신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도 11). 기단부가 연화대좌로 표현되어 초층탑신은 곧 불상



도 11. 도피안사 삼층석탑, 9세기 중반,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혹은 불상이 머무는 금당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9세기 불상의 대좌에 신장상 등이 조각되는 사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추정된다 (도 12).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그리고 사천왕상 위에 위치하는 사리공으로 처음 조성되었던 탑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8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초층탑신의 사리공 역시 처음 조성될 당시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조성되는 탑의 경우 이

와 상관없이 당시 유행하였던 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앙적 의미를 내포하고 표현되는 탑과 형식적 답습을 하는 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도 12. 비로자나불상, 9세기, 경북대학교 박물관 (사진 : 최성은, 『Korean Art Book-석불·마애불』, 예경, 2004, p.64 전재)

8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석탑 부재가 형식적 답습의 대표적 사례로 보이는데 초층탑신에 당시 유행하였던 사천왕상과 새롭게 등장한 초층탑신의 사리공 위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사천왕상이 탑에 조각되는 경우 형식적 답습의 사례가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계열로 분류하기에 김천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은 문제가 된다. 이 탑은 1916년 경북공으로 이전 당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는데 기단부에 안치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초층탑신부에 천의를 휘날리는 사천왕상 내지 사보살입상의 鎚鑠製物像이 조각되었다고 알려져 왔고 사천왕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²⁴⁾ 만약 조각된 상이 사천왕상이라면 이 상 아래 사리가 봉안될 수는 없다. 따라서 탑을 조성하던 중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제작하는 공정의 계획이 바뀌어 사리를 기단부로 납입하게 되었고 조각하였던 사천왕상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였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새로운 탑신석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工期를 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상과 같이 불탑에 조각된 사천왕상의 출현과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사천왕상이 탑에 부조될 경우 그 배치공간과 탑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시원적 사례는 『금광명경』과 관련하여 제작된 682년 감은사 동서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탑의 전각형사리기는 기단부에 신장상과 공양자상 그리고 신부에 표현된 난간과 문 그리고 사천왕상과 보다 높게 제작된 사리병의 조형성을 통해 사리기가 불사리를 담는 용기로서의 개념이 아닌 부처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탑은 수직적 공간의 의미로 수미산을 상징하였고 수미산 중 사왕천에 머무는 사천왕은 초층탑신에 배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공간 위에 부처가 상주하는 불국토는 사천왕이 조각된 초층탑신보다 위층에 사리봉안의 장소로 조형화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초기 불탑에 사천왕상이 배치되었을 때는 단순한 탑 보호의 개념에서 나아가 사리공과의 위치를 고려하여 불탑 자체를 수미산의 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탑이 부처의 무덤이라는 개념에서 상주하는 공간, 불국토의 개념으로 그 인식이 바뀌며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후 불탑에 등장하는 모든 사천왕상과 사리공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작품이든 처음에 의미가 부여되어 조성되더라도 이후 의미는 퇴색되고 형식화된 현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8세기 후반이 되면 8세기 중반부터 초층탑신에 사리공이 배치되기 시작하여 이후 대부분의 탑이 이러한 형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초층탑신에 사리공을 봉안하는 것과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이 배치되던 기존의 방식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층탑신에 사리공이 봉안될 경우

24) 고유섭, 앞의 책, p.303.

사천왕상은 위계와 관련하여 사리공 즉 부처보다는 아래 공간에 배치되는 예가 더 일반적이며, 9세기 불탑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9세기 상층기단에 사천왕상을 비롯하여 복합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초층탑신에 위치한 사리공과 이와 관련한 지저천의 공간 이동으로만 해석하기엔 복합도상들로 구성되는 도상 출현의 원인을 설명하기 부족하다. 이들 복합도상들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며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출발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서 시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통일신라 경주지역 탑부조상의 사례

연번	명칭	시기	現高 (m)	도상 종류	사리공 위치	탑형식	비고
1	분황사 모전석탑	634년 7C 전반	9.3	금강역사상	이층탑신	단탑	4면 8구, 감실
2	傳구황동 모전석탑 부재	7C 후반	-	금강역사상	-	단탑	4면 8구 추정, 감실
3	석장사지 사천왕상 전편	7C 후반	-	사천왕상	-	단탑 추정	탑부조 추정
4	사천왕사지 신장상 전편	679년 7C 후반	-	신장상	-	쌍탑	4면 24구
5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8C 중반	7.0	사천왕상 십이지상	이층육개	쌍탑	
6	원원사지 서삼층석탑	8C 중반	7.0	사천왕상 십이지상	이층육개	쌍탑	
7	장항리사지 서오층석탑	8C 중반	9.1	금강역사상	초층탑신	쌍탑	4면 8구, 문비
8	창림사지 삼층석탑	8C 중반	6.98	팔부증상	초층탑신	단탑	서남산, 문비
9	담업사지 석탑 부재	8C 중반	-	팔부증상	-	-	서남산 봉화곡
10	천관사지 석탑 부재	8C 중반	-	팔부증상	-	단탑	서남산
11	경주 동국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1	8C 중반	-	팔부증상	-	-	천관사지 탑재추정
12	장항리사지 동오층석탑	8C 후반	-	금강역사상	초층탑신	쌍탑	4면 8구, 문비
13	황룡사지 서편사지 석탑 부재	8C 후반	-	사천왕상	-	단탑	
14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1	8C 후반	-	사천왕상	-	쌍탑 추정	서로 함께 조성된 쌍탑으로 추정.
15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2	8C 후반	-	사천왕상	-	쌍탑 추정	
16	경주 경찰서 내 탑 부재1	8C 후반	-	사방불	-		
17	경주 경찰서 내 탑 부재2	8C 후반	-	사방불	-		
18	경주 읍성 동문지 석탑 부재	9C 전기	-	명왕상	-	단탑	4면 8구, 문비
19	남산리사지 서삼층석탑	9C 전기	5.5	팔부증상	-	단탑 추정	
20	傳인용사지 석탑 부재	9C 전기	-	팔부증상	초층탑신	쌍탑	문비
21	傳영경사지 삼층석탑	9C 전기	5.0	금강역사상	-	단탑	1면 2구, 감실
22	창림사지 서편사지 석탑 부재	855년 9C 중반	-	팔부증상	이층탑신	단탑	서남산
23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9C 중반	4.3	팔부증상	초층탑신	쌍탑	문비
24	송복사지 서삼층석탑	861년 9C 중반	3.2	팔부증상	초층탑신	쌍탑	문비
25	국립중앙박물관 석탑 부재1	9C 후반	-	팔부증상	-	-	
26	국립중앙박물관 석탑 부재2	9C 후반	-	팔부증상	-	-	
27	동부동 출토 석탑 부재	9C 후반	-	팔부증상	-	-	

연번	명 칭	시기	現高 (m)	도상 종류	사리공 위치	탑형식	비고
28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3	9C 후반	-	팔부중상	-	-	사제사지 탑재
29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	9C 후반	-	팔부중상	-	-	사제사지 탑재추정
30	경주동국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2	9C 후반	-	사천왕상	-	-	
31	하동리 출토 석탑 부재	9C 후반	-	금강역사상	-	-	4면 8구
32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9C 후반	3.6	사천왕상	-	단탑	남산 승소곡, 안상
33	천군동 출토 석탑 부재	9C 후반	-	사천왕상	-	-	
34	금곡사지 원광법사부도탑	9C 후반	-	사방불	-	단탑	
35	동천동사지 석탑 부재	9C 후반	-	사방불	-	단탑	
36	경주동국대학교박물관 석탑 부재3	9C 후반	-	사방불	초층탑신	-	
37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4	9C 후반	-	사방불	초층탑신	-	
38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5	9C 후반	-	사방불	-	-	
39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6	9C 후반	-	사방불	-	-	
40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7	9C 후반	-	사방불	-	-	
41	국립경주박물관 석탑 부재8	9C 후반	-	사방불	-	-	

IV.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이 조각된 28기의 불탑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통해 시기와 지역적 전개양상을 정리하고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배치 공간과 다른 도상과의 조합관계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네 가지 유형은 사천왕상이 조각된 불탑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 지역적 분포는 경주지역은 I·II유형 그 중에서도 I유형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전라도지역은 II·III유형, 강원도지역은 III·IV유형 그리고 의성·안동을 중심으로 경북지역과 그 주변일대는 I~IV유형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I·II유형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사천왕상이 초층탑신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천왕상의 등장은 7세기 후반 『금광명경』의 유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 사천왕상이 초층탑신에 부조상으로 배치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682년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 내 봉안되었던 사리기에 보이는 사천왕상에서 찾아보았다. 감은사지 동탑사리기의 경우 신장상과 공양자상이 조각된 기단부와 사천왕상과 그 중앙에 높이 솟은 불사리가 봉안된 탑신부, 천개부로 표현된 전각형사리기로

사리기가 단지 사리를 담은 용기가 아닌 불국토를 조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불국토의 조형을 삼층석탑에 적용할 경우 사리기의 기반부는 석탑의 기반부와 연결할 수 있고, 사리기의 신부에 배치되었던 사천왕은 석탑의 초층탑신에 배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의 초층탑신은 수미산의 사왕천을 상징하게 되며, 이 사왕천인 초층탑신의 위층 공간은 부처가 상주하는 불국토의 의미가 부가되어 사리봉안의 위치와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사천왕상이 부조된 석탑의 사리공 위치가 대부분 사천왕상이 조각된 초층탑신 보다 상층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 개연성이 확인된다. 아울러 9세기 이후 사천왕상을 포함한 제석·범천 등의 도상들이 복합적으로 구성과 함께 상층기단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도 사리공의 위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에 부조된 복합도상의 출현과 공간의 이동은 불교신앙의 변화와 사회적, 정치적 동향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실마리는 초층탑신에 복합도상이 처음 등장하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에 있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추후 별도의 지면을 통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 투고일 2009년 12월 26일 | 심사완료일 2010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0일 ■

참고문헌

사료

『三國遺事』
『金光明經』
『合部金光明經』

단행본

고유섭, 『고유섭전집1』, 동방문화사, 1993.
문명대, 『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한길아트, 2003.
장충식, 『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2004.
최성은, 『Korea Art Book-석불·마애불』, 예경, 2004.

도록 및 보고서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국립경주박물관 명품100선』, 국립경주박물관, 2007.
『국보』11, 예경산업사, 1983
국립박물관, 『感恩寺』, 울유문화사, 1961.
『남원 실상사 백장암 시굴 및 금당지주변 발굴조사보고서』, 남원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1.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불사리장엄』, 국립중앙박물관, 1991.
『석장사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1994.
小場恒吉, 『慶州南山の佛蹟』, 조선총독부, 1940.

논문 및 학술지

강우방, 「사천왕사출토 소조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 『고고미술』143·144호, 한국미술사학회, 1979.
_____, 「사천왕사지출토 채유사천왕부조상의 복원적 고찰과 오방신과 사천왕의 조형적 습합현상」, 『미술자료』21, 국립중앙박물관, 1980.
권장미, 「통일신라 사천왕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 김보형, 『통일신라 십이지상 도상 연구-사천왕사지와 원원사 석탑부조를 중심으로』, 『회당학보』7, 회당학회, 2002.
- 김길웅, 『석장사지 출토 소조신장상의 고찰』, 『문화사학』25, 문화사학회, 2006.
- 김리나, 『통일신라 전기 사천왕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 문명대, 『新羅 神印宗의 研究』, 『眞檀學報』41, 진단학회, 1976.
- _____, 『한국탑부조상의 연구(2)-신라 사천왕상의 연구』, 『佛敎美術』5, 동국대학교박물관, 1980.
- 서연수,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의 표면장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72
- 신용철, 『화엄사 사사자석탑의 조영과 상징』, 『미술사학연구』250·251호, 한국미술사학회, 2006.
- _____, 『초기 신라 불탑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 심영신,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연구』, 『미술사학연구』216호, 한국미술사학회, 1999.
- 임영애, 『무장형 사천왕상의 연원 재고』, 『강좌미술사』11,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8.
- _____, 『사천왕사지 소조상의 존명』, 『미술사논단』27, 한국미술연구소, 2008
- 장충식, 『통일신라 석탑부조상의 연구』, 『考古美術』제154·155호, 1982.6
- _____, 『신라 낭산유적의 제문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17, 신라문화선양회, 1996.
- 조원영, 『신라하대 사천왕부조상의 조성과 그 배경』, 『부산사학』19, 부산대사학회, 1995.
- 최민희,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출현과 조탑공덕경의 관계』, 『불교고고학』3,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3.
- 한정호, 『感恩寺址 東·西三層石塔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 허형욱, 『실상사 백장암 석탑의 오방신상에 관한 고찰』, 『미술사연구』19, 2005.

Abstract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carved on Pagoda and Their meaning in Unified Silla

Kim, Ji Hyun

The Pagodas, in Unified Silla, are decorated in relief with various images.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four heavenly guardians of Buddhism) of those images are affiliated with *Suvar aprabh sottamar ja-sūtra* (金光明經) in the latter part of 7th century, and located various floors of Pagoda. About this, we arranged Pagodas carved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by cases and classified by floors of Pagoda carved these, and examined their meaning of symbols with being made pagoda in early.

Pagoda carved in the Four Deva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This shows obvious local character. I type is carved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on the first floor of Pagoda and II type, another image, another floor of Pagoda with them on the first floor of it. Most of these show in Gyeongju, and in early. Jeolla-Do show II type and III type,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with various images on the first floor of it. Gangwon-Do, III type and IV type,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with various images on the upper stereobate of it, and Gyeongsangbuk-Do in and around Andong · Uiseong show all. I · II types, in Gyeongju, among them has in common, the Four Devas carved on the first floor of it.

As stated above, the advent of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has a close relation to *Suvar aprabh sottamar ja-sūtra* (金光明經) in the latter part of 7th century. About this believe the reasons and meaning,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carved on the first floor of it, is Sarira Reliquary carved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of three-story stone pagoda at Gameunsa

Temple Site, in 682. especially, reliquary into eastern pagoda is Palace Building-shaped reliquary, the figuration of the Buddha's Land conception. and if this were made in Pagoda, the Four Devas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pagoda. and this mean the world of them in Sumi Mountain. their upper floor, Buddha's Land. this is related to the floor of being enshrine Sarira in Pagoda. for example, three-story stone at Wonwon temple site in Gyeongju, three-story stone of four lions at Whaeom temple in Gurye, the West Pagoda at Whaeom temple in Gurye, etc. these has the Hole for Sarira into second Roof Stone or second floor of Pagoda.

In the middle of 8th century, Pagoda has the new form of the hole for sarira into the first floor of it. Since then, this show general form in Unified Silla. This suppose one of the reason that various image including the Four Devas carved the first floor of pagoda have to migrate the upper stereobate. But this will solve the various way my thinks. and first, we will research three-story stone of four lions at Whaeom temple in Gurye.

Key Words : the statue of the Four Devas, Pagoda, Unified Silla, Images carved on Pagoda, Sarira Reliquary into east pagoda in Gameunsa temple site, *Suvar aprabh sottamar ja-sūtra*.